

대심도 철도시설 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적용성 연구

Field Applicability Study to Build an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 for Deep Railway Facilities

오윤식*, 심진호**, 김수연**, 임형석†

초 록 수도권 교통난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역을 방사형으로 교차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추진 중이며 3월 30일에는 32.8km의 GTX-A노선이 개통되었다. GTX는 평균 심도 40m 이상의 대심도 노선으로 계획되며 정거장도 대부분 동등 수준의 대심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최근 자연·사회재난에 의한 침수, 지진, 화재 등 지하철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대심도의 지하공간은 재난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피난구간 활동에 어려움이 배가되어 사망자 발생확률이 높다. 현재 철도시설 재난대응 한계 극복을 위한 AI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테스트 역 적합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lhs7708@korail.com)

*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202367@korail.com)

**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ghghgh1207@korail.com, tndus1585@korail.com)